반 유아교육학과 박주원



이동도법과 고정도법

(1) 이동도법

이동도법은 조(調)를 결정하는 조표에 의하여 으뜸음이 이동되며 이동된 으뜸음을 기준으로 하여 음계가 형성된다.

조성의 변화에 따라서 각 악곡의 계이름을 이해하고 시창할 수 있으며 화성도 역시 이에 따라결정된다.

이동된 으뜸음에 의하여 화성을 파악해야만 정확한 반주를 할 수 있다. 이동도법에 주로 쓰이는 화성은 I, IV, V의 주요3화음과 7화음인 V7화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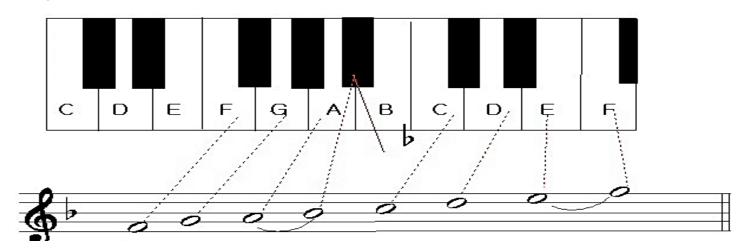
(2) 고정도법

고정도법은 조성의 변화에 관계없이 으뜸음은 항상 다장조의 도(Do)로 하며 조표는 연주 할 때만 적용한다.

화음의 밑음을 기초로 한 코드를 보고 화음을 선택하여 연주하게 된다.

고정도법의 장점은 모든 조를 다장조의 기준에서 생각하므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조성과 화성감이 둔해지고 화성분석에서 착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동도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고정도법을 응용하는 것이 좋다.

이동도법과 고정도법에 의한 계명과 음이름의 차이, 건반상의 위치를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다. 다음 바장조의 음계는 이동도법으로는 F음을 '도'로 읽고 화성을 분석하고 반주를 할때 바장조의 I 도화음이라 하며 고정도법으로는 F음 그대로 읽으며 화성도 F코드를 연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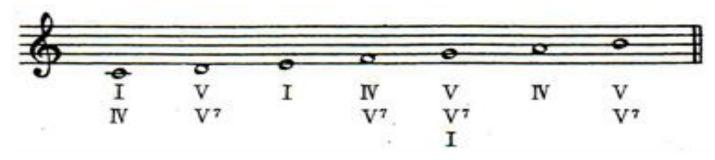
고정도법: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동도법 :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7. 반주를 구성하는 화음선택법

- (1) 악곡의 조성을 파악하고 큰보표 밑 왼쪽에 기록한다.
- (2) 자연스러운 반주화음의 진행을 위해서는 멜로디에 내포된 화성적인 배경을 올바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반주를 만들려는 멜로디의 조성을 파악한다.

다음은 다장조 음계의 각 음에 사용할 수 있는 화음을 나타내었다.



- (3) 유아 노래는 주요3화음(I, IV, V)과 7화음인 V₇을 주로 사용하므로 멜로디의 계명을 파악하고 멜로디에 맞는 화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 (4) 멜로디를 파악할 때 가능하면 강박이 있는 음을 공통음으로 가진 화음을 선택한다.
- (5) 화음을 자주 바꾸지 말고 한 마디에 하나 또는 두 개의 화음을 사용한다.
- (6) 멜로디가 도약진행일 경우는 가능한 같은 화음을 사용한다.
- (7) 화음이 잘 되지 않는 음은 비화성음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 (8) 멜로디에 임시표가 있을 때는 조바꿈인지 비화성음을 사용한 것인지 판단하여 화음을 선택한다.
- (9) 마디가 바뀔 때 끝박자와 그 다음 마디 첫 박자가 같은 음일 때는 반주는 다른 화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10) 곡이 끝나는 바로 전 화음은 V나 V7을 사용한다.
- (11) 시작과 끝마디는 I 화음을 사용한다.

반주의 종류와 형태

반주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멜로디를 고음부나 저음부에서 나타내고 다른 성부에 화성을 넣어서 반주하는 가락 있는 반주와 멜로디는 유아가 노래로 하고 반주는 양손을 이용하여 화음만을 리듬과 박자에 따라 진행시키는 가락 없는 리듬 반주가 있다.

반주의 형태는 박자계열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된다.

1. 가락 있는 반주

유아는 노래할 때 음정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가락이 있는 반주를 사용하여 유아가 노래의 흐름에 맞추어 정확한음정을 소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노래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왼손으로 화음진행의 원리에 따라 적합한 화음을 선택하여 반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왼손반주가 이용된다.

곡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또는 교사의 피아노 반주능력에 따라 반주형을 선택하여 연습한다

(1) 2박자계열의 반주형









(2) 3박자계열의 반주형





(3) 4박자계열의 반주형









★ 4박자계열의 가락 있는 반주형의 예



★ 4박자계열의 가락 있는 반주형의 예

은빛같이 유랑하는 달



(4) 6박자계열의 반주형



2. 가락 없는 리듬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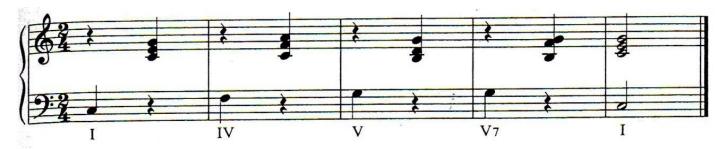
유아가 노래의 멜로디를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어 반주에 선율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면 반주는 화음을 양손으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리듬반주 또는 무선율반주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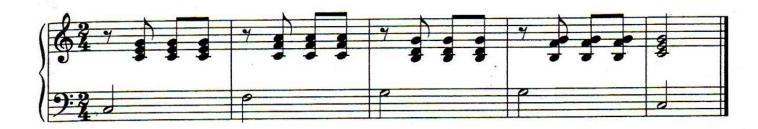
가락 없는 반주는 리듬형 반주이므로 화음을 많이 넣어 연주하게 되는데 음의 생략이나 중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화음의 생략은 5음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복은 밑음과 5음을 중복시키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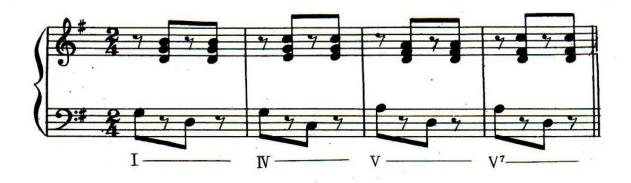
그러나 3음은 중복과 생략을 해서는 안된다.

3음은 화음의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 2박자계열의 리듬형 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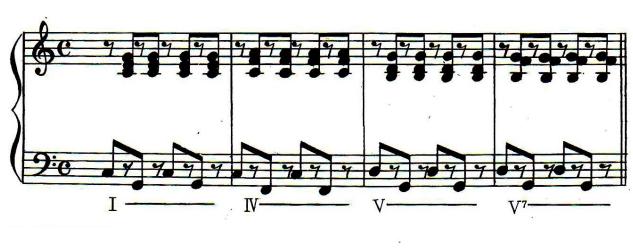


★ 3박자계열의 리듬형 반주의 예



(3) 4박자계열의 리듬형 반주







(4) 6박자계열의 리듬형 반주

